

군산시, 청렴도 본격 상승大作전

신규 이통장단 청렴 서약식·청렴 약속 데이&청렴 골든벨·간부공무원 청렴 교육 등 집중 추진

군산시(시장 김임준)가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7월 한 달 동안 3가지 주요 청렴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책들은 ‘신규 이통장단 청렴 서약식’, ‘2025년 청렴 약속 데이 & 골든벨 행사’, ‘간부 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청렴도 골짜기’라는 오명에서 탈출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청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7일에는 군산시 신임 이통장단을 대상으로 청렴 서약식이 개최된다. 서약식에는 이통장단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군산시의 관행적 부패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청렴 서약문을 낭독한다.

이어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및 청탁 거부, 부당이익 미취득’

을 약속하며,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등 엄격한 청렴 준수를 다짐한다.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리더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행장과 이·통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군산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10일에는 ‘2025년 청렴 약속 데이’가 열린다. 이날은 군산시와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 군산 실천 공동선언식’이 진행된다. 세 기관 대표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청렴 의지를 공유하게 된다.

또한 전 직원 대표가 청렴 결의문을 낭독하고 모두가 청렴구호를 외치는 결의의 시간도 갖는다. 이어 ‘청렴 골든벨’ 퀴즈 대회를 통해 청렴 관련 지식을 점검하고 참여자들의 청렴 의식을 한층 고취 시킬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14일에 4급, 5급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이 시행된다.

이번 교육은 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간부 공무원들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시는 이를 통해 군산시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한 조직문화를 선도하고, 부패 예방에 앞장서는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책 추진으로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대폭 제고하고,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군산시로 거듭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시는 청렴 중심 행정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청렴 도시 군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민호 기자



군산시, 2025년 상반기 특교세 확보 ‘총력’

김영민 부시장, 행안부 지방교부세과 방문… 특별교부세 적극 지원 요청

군산시가 지역현안 해결·체계적인 재난 대응에 필요한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과를 지난 2일 방문하여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군산시 김영민 부시장은 △월명산 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서래고 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 △광대성 탕방로 조성사업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 △철봉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 총 12개 사업(82.6억원)을 건의하며 사업별 필요성 및 시급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군산=김민호 기자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업,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편성되는 재원으로 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 행정안전부 심사 후 교부한다.

김영민 부시장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 지역 현안 및 재난사업 예산들이 필요한 시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 최정상 배드민턴 선수들, 익산에 모였다

‘2025 대통령기 전국중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오늘부터 14일까지 열려

안세영·서승재 선수 등 700여명 참가… 단·복식, 혼합복식 전 종목 진행

전국 최정상 배드민턴 선수들이 익산에서 치열한 승부를 펼친다.

익산시는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익산시 실내체육관에서 ‘2025 대통령기 전국중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진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권위 있는 대회로, 전국에서 700여 명의 대학부 및 일반부 선수들이 참가한다.

선수들은 남녀 단식·복식, 혼합복식 등 전 종목에서 승부를 겨루며, 대회 성적은 부문별 우수 선수 발굴 및 국



가대표 선발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랭킹 1위 안세영 선수와 2025 인도네시아 오픈

남자복식 우승을 기록한 세계랭킹 6위 서승재 선수가 출전해 배드민턴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이번 대회가 지역 체육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선수단 및 가족 방문에 따른 숙박·외식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 규모의 대회를 통해 익산이 스포츠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의회 한마음 대회 성료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회의 친선과 교류의 장인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의회 한마음대회’가 2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가 주최하고,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이 주관했으며 도내 14개 시·군 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 등 700여 명은 한자리에 모여 각 시군의회 간 연대와 화합을 다지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가 됐다.

본격적인 대회 진행에 앞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들과 유공공무원 표창이 진행되어 양세웅 의원이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박경태 의원

은 전북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으며 군산시의회 서승민 주무관과 송승원 주무관이 각각 전북도지사 표창과 전북도의회 표창을 받았다.

행사는 제기차기, 타구공 계란판에 넣기, 공볼이끼, 딱지치기 등 체육경기과 각 시·군의회가 준비한 끼를 발산하는 화합 한마당, 경품추첨과 시상 순으로 이뤄졌다. 【군산=김민호 기자

익산시, 수도권 대학생 주거 부담 덜다

수도권 대학 재학생 대상, 2학기 행복기숙사 입주생 13명 선발

익산시가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익산시 학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나섰다.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현율)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2학기 행복기숙사’ 추천 입주생 13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흥제, 동소문, 개봉동, 독산동 등 수도권 행복기숙사에 입주할 학생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천된 학생은 발급받은 합격증을 통해 각 기숙사의 모집 일정에 맞춰 개별적으로 입주를 신청해야 하고, 최종 입주 여부는 기숙사에서 결정한다. 입주를 완료한 경우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이 2학기 동안 월 14만 원씩, 총 84만 원의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 소재 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 신청자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중 1인)가 공고일 기준으로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서류를 준비해 (재)익산사랑장학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교육청소년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행복기숙사 입주생 신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재)익산사랑장학재단 누리집(itsaf.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859-5820)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학생들의 선택을 반영한 편의시설과 기숙사 공실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은 2007년 출범해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익산사랑 장학금, 지역오피스인재육성사업, 행복기숙사비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우리들의 군산’

시민토론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오는 11일 시청에서 개최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 이야기 ‘우리들의 군산’에 참여할 시민토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14회 인구의 날을 맞이하여 마련된 ‘우리들의 군산’은 시민과 함께 인구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중심 소통의 장’으로 1부 세미나·2부 시민토론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시민토론회 참여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신청은 7월 8일까지, 포스터 내 QR 부호(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은 “이번 토론회는 인구 정책의 당사자인 시민이 논의의 주체가 되어 함께 해법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민호 기자

익산시,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익산시는 전북도 주관 ‘2025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2회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익산시 지방세입 행정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율, 지방세수 및 징수 신장률, 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자동차 공매 실적 등 9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다.

익산시는 상반기 체납 지방세 56억원을 정리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현장 독려를 통해 2억 1,300만원, 견인·공매처분으로 1억4,8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부동산과 예금 입주를 통한 채권 확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금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실질적인 체납 정리에 나섰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